

05 고등학교 1학년

무너지는 아이를 어떻게 보나

학업중단이 가장 많은 학년입니다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먼저 사실부터	2
02 무엇이 힘든가	3
03 알아차리는 자리	4
04 어디로 가시나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성적만이 아닙니다** — 성적·관계·몸·마음 넷을 나눠 본 표
- ◆ **성적표보다 먼저 오는 신호** — 지각·잠·말수·주말
- ◆ **「그만두고 싶다」는 말에 그날 답하지 마십시오**
- ◆ **학교 안에 먼저 있습니다** — 담임 · 상담 선생님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1 · 먼저 사실부터

고1에 가장 많습니다

고1은 힘들어하는 아이가 가장 많은 학년입니다. 바뀌는 것이 한꺼번에 오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 성적을 세는 법, 모인 아이, 시간표, 결정할 것. 그리고 그것이 3월에 동시에 옵니다.

고등학교 전체로 보면 **학업중단율이 2020년 1.1%에서 2024년 2.1%**가 됐습니다. 중단자 수로는 **14,439명에서 27,065명**입니다.

학년별로 나눈 공식 표는 저희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고1이 가장 많다」를 숫자로써는 못 보여 드립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보는 것과 학교에서 듣는 것입니다.

이 편은 진단하려고 쓴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알아차릴 수 있는 자리와, 그때 어디로 가시면 되는지만 적었습니다.

왜 이 편을 넣었나

저희는 입시를 다루는 곳입니다. 그런데 **고1 상담에서 성적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성적이 문제가 아니었던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때 성적 계획을 세워 드리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아이를 더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에 한 편은 이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입시 자료가 다룰 수 있는 범위의 끝에 있는 편입니다.

출처: 교육부 「2025년 교육기본통계」 학업중단을 표. 「**학업중단**」은 자퇴만이 아니다. 퇴학·유예·면제·제적을 다 합친 수다. 자퇴만 따로 센 수를 이 표에서는 알 수 없다. 학년별 분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02 · 무엇이 힘든가

성적만이 아닙니다

같은 「힘들다」에도 안이 다릅니다. 「공부가 힘들다」로 뭉뚱그리면 손덜 자리가 안 보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나타나나
성적	중학교와 달라진 등수 — 가장 눈에 띄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관계	새 학교, 새 아이들 — 이동 수업으로 더 어려워졌습니다
몸	수면·식사·두통 — 말보다 먼저 나타납니다
마음	의욕·불안 — 가장 늦게 보입니다

셋째 줄을 먼저 보십시오. 아이는 힘들다고 말하기 전에 몸으로 먼저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이 크게 달라졌거나, 안 먹거나, 자주 아프다고 하면 성적 이야기를 하실 때가 아닙니다.

둘째 줄도 짚어 두겠습니다

고교학점제로 과목마다 교실이 바뀌면서 「우리 반」에 속하는 느낌이 예전보다 열어졌습니다.

어른에게는 사소해 보이지만 아이에게는 하루의 대부분입니다. 성적보다 이쪽이 더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정리한 것이며 의학적·심리학적 진단 기준이 아닙니다. 걱정되시면 전문 기관에 상의하십시오.

03 · 알아차리는 자리

숫자보다 먼저 오는 것

성적표는 늦게 옵니다. 그전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	왜 보십니까
지각·조퇴가 늘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학교 이야기를 안 한다	전에는 하던 아이라면 특히
잠이 크게 달라졌다	늦게 자거나 계속 잔다
주말에 안 나간다	관계 쪽일 수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다」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첫째 줄이 학교에서도 가장 먼저 잡히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출결은 학점과도 걸립니다 — 수업일수 191일이면 128일 이상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년말에 유급 대상이 된다(3분의 2 올림)

즉 지각·결석은 마음의 신호이면서 동시에 제도의 문제가 됩니다.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맨 아랫줄에 대해

「학교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들으시면 그날 답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도 「그래」도 아닙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듣고 싶다」가 그날의 답입니다. 까닭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일이고, 그건 N 시리즈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문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진단이 아니며, 아이마다 다릅니다.

04 · 어디로 가시나

학교 안에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에 물어야 할지 몰라 밖부터 찾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안에 먼저 있습니다.**

어디	무엇을
담임 선생님	학교에서의 모습 — 집에서는 안 보이는 것
학교 상담 선생님	대부분의 학교에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마다 있고 무료 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학업 중단을 생각할 때

첫째 줄을 먼저 하십시오. 담임 선생님은 집에서 **안 보이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학교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 자리 배치, 상담 연결, 출결 처리.

「문제 있는 아이로 보일까 봐」 미루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찍 말씀하실수록 학교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걱정되실 때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지각·조퇴** 가 늘고 있는가
- ☐ **잠과 식사** 가 달라졌는가
- ☐ 학교 이야기를 **안 하게** 됐는가
- ☐ 주말에 **안 나가**는가
- ☐ 성적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 를 해 봤는가
- ☐ **담임 선생님** 과 이야기했는가
- ☐ 학교 **상담** 을 알아봤는가
- ☐ 「그만두고 싶다」는 말에 **그날 답하지** 않았는가

다섯째를 권합니다. 집에서 하는 이야기가 성적 이야기뿐이면 아이는 힘들 때 말할 자리가 없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는 입시를 다루는 곳이고, **이 편은 저희가 다룰 수 있는 범위의 끝에 있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이 보이시면 입시 상담보다 먼저 **학교와 상담 기관을 찾으십시오.** 성적은 나중에 회복되지만 그 시기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편을 넣었습니다.

05 · 자주 묻는 것

고1 적응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사춘기인지 정말 힘든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저희가 구분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전문가도 한 번 보고 구분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구분하려 하지 않으셔도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도움을 받아서 나쁠 것이 없습니다.

보실 것은 「얼마나 오래」와 「일상이 무너졌는가」입니다. 며칠 안 좋다가 돌아오면 흔한 일이고, 몇 주 이어지면서 잠·식사·등교가 무너지면 다릅니다.

후자라면 구분하려 애쓰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학교 상담 선생님이나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대개 무료입니다.

「아니었다」로 끝나면 그것으로 좋은 일입니다.

Q. 공부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화를 냅니다.

흔한 일이고, 대개 까닭이 있습니다.

아이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이 안 나온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이이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는 것을 다시 확인시키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고1은 스스로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시기입니다. 답을 모르는데 물으니 화가 납니다.

방식을 바꿔 보십시오. 「왜 안 했어」가 아니라 「뭐가 제일 어려워?»입니다. 앞은 추궁이고 뒤는 물음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성적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말할 자리가 있어야 힘들 때 말합니다. 그 자리를 만드는 것이 고1에서 가장 값이 큰 일일 수 있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성적표보다 먼저 오는 신호가 있습니다 — 출결·잠·말수. 보이시면 담임 선생님과 상담부터 하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교육부 통계와 저희 상담 경험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학적·심리학적 진단이 아니며, 걱정되시면 전문 기관에 상의하십시오.